



묵示錄研究

제 三 장 인 자 의 나 라 나 심

복사의 명칭과 기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인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여러 종에게 고향이니 예수께서 그 사자로 말미암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그 여러 가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나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새가 가싸움이라」

성경의 여러 책들은 대개 그 저술자의 이름을 써라 명칭하였다. 그런데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고 그 허두에 밝히 말하였으니 이는 『요한』이 이 묵시를 기록하는 하였으나 실상은 예수께서 이 묵시를 『요한』에게 알게 하신 새문이다.

『요한』은 곳 영두제자중에 한 사람으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라는 별 이름을 바는 자

이다. 그는 항상 예수로 더부러 함께 다니고 무슨일이 잇든지 가장 가까이 모시든자
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때에도 그 곁에 잇었으며 또한 예수께서는 십자가우에서
자기 모친을 그에게 부탁하셨다.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심을 바다 요한복음과 요한편지서를 기록하였는
데 이번에는 예수께서 보내신 사자로 말미암아 묵시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 묵시를 전
한 사자는 필시 『다니엘』에게 묵시를 전하여야 하는 『가부리엘』 천사일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단九장十장참고) 그리고 이 묵시는 반드시 반드시 속히 될일을 그 여러종에게 알리기위하여
『요한』에게 보임이라 하였으니 그 여러종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모든자들, 특별히 오
늘날 말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도리를 지키는자들을 의미한 것이다.

『묵시록』이란 말은 『그리스어』 원문에는 『아포칼립스』 (Apocalypse) 라는것인바 이는 계
시(啓示) 혹은 계시(開示) 라는 의미이니 곧 하나님이 그 은밀한것을 드러내 보이신
다는 뜻이다.

『요한』이 『빛』이라는 성에 잇을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묵시를 그에게 주사 당신의 경
륜의 가장 완전하고 선명한 광선을 보이셨나니 이는 교회로 하여금 이 복음의 묵시
를 온세상에 반포케하기 위하심이다. 어떤 저술가는 이 묵시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패
노라마』라 하고 하였나니 주 그리스도를 전적(全的)으로 드러내인 묵시라 함이다. 『요
한』은 이 묵시를 바들때에 묵시를 책에 바다 기록하라는 지시까지 바닷다.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된 사실은 아조 재미잇고도 가장 필요한것이며 쓰는 매우 속히 성취될것이

므로 이책의 귀한말씀을 공부하는자들은 특별한 복을 바들
것이다. 그러나 만흔 그리스도인들과 만흔 성경연구자들이 이
묵시록에 대하여는 봉한글이라하여 사람이 능히 해석할수 업
는것이라 한다. 이는 저희가 묵시록의 근본정신을 어기는것
이니 이미 말한바와 가리 묵시는 곧 하나님이 그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시는것임이다. 그리고 『요한』도 기록하기를 『하
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그 여러가지
본것을 다 증거하였나니라』 하였다. 그러면 증거는 깨닫
지못할것인가? 증거는 깨닫지못하
게 하는것이 아니라 더욱 잘깨닫
게 하는것이다. 그러기로 분명히 기
록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자들이 복이 잇으리라』
한것이다. 이와가리 『읽는자가 복이
잇으리라』고 선언하고 기록한래는
성경의 다른책에서는 볼수업다. 오
직 이 묵시록에 한하여 그러한 부



동처르가를시묵기에『한요』가사천

을 허락한 것이다. 그런고로 모든 사람은, 특별히 우리 믿는자들은 이 묵시록을 신중히 상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자의 다시 오심

「『요한』은 『아서아』에 잇는 닐굽교회에 글을 부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압헤 닐굽신과 또 신실한 증거가 되사 죽은 자가운데서 묻저 나시고 세상 닐굽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게 잇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죄를 업시하시고 우리로 나라를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삼아 그 아바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영광과 권능을 돌려 세세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불지어다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리니 각인의 눈이 반드시 보겔고 저를 찌른자도 불터이오 싸에 잇는 여러 족속이 다 인하여 애곡하리니 진실로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르사대 나는 곳 『알파』와 『오메가』라 하시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요 무소불능하신 자니라」

이 글은 소아세아에 잇는 닐굽교회에 부쳤는바 닐굽이란 수는 완전한것을 표시하는 수로 『요한』당시로부터 숫날까지에 이르는 그리스도교회의 각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닐굽교회에 대하여 소아세아에 관한 고고학에 큰 권위를 가진 『윌리엄·람제』경은 이러한 말을 하였다. 「소아세아에는 닐굽파벌의 교회가 잇었는데 이 닐굽파벌중에는 각각 대

표될만한 한 교회가 잇었다. 그리고 이러한 닐굽파벌의 대표적교회는 전그리스도교회를 대표하였다.」 과연 소아세아에 잇는 닐굽 교회는 그 평칭으로나 형편으로나 각 시대의 그리스도교회의 상태를 표상하기에 적당하였다.

『요한』은 닐굽교회에 부치는 편지 허두에 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잇기를 빌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이는 누구뇨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계시는 곳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압헤 잇는 닐굽신 곳 온전하신 성신과 또한 죽은 자가운데서 묻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삼위로 말미암아 온전한 은혜와 평강이 인류에게 미치나니 죄만은 인류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진오한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조차 나는 평강이다. 『요한』은 닐굽교회에 축복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 인류를 사랑하사 그 피로 죄를 씻어 업시하시고 우리로 나라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삼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리었다. 이는 옛적부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니 빌렸으대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十九〇六) 하였으되 또 빌렸으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가튼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이오 그의 어드신 백성이라」(벧전二〇九) 하였다. 그런즉 오늘날 교회의 신자된 우리들도 우리로 하신 백성을 삼고 제사장을 삼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복자의다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리라」한 이 말씀은 묵시록의 열쇠라고 할수있다. 이 영광스러운 사실이 예수의 완전하신 생애——그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신성(神性)을 가

타을름구다어지불 라리시하림강고



저십과, 그가 육신을 쓰셨으나 죄를 범치 아니하심과,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심과,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심과, 승천하심과, 하늘성소에서 종보의 직분을 행하심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심을 완결(完結)하는 것이다. 예수의 강림하시는 것은 성경말

씀에 잇는 썩 그대로 될 것이니 승천하시는 바로 그모양대로 다시 림하실 것이다.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사람들이 어찌 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를 너희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셨으니 하늘로 올려가심을 본대로 오시리라」(행 一〇 十一)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의 재림은 무슨 신령적으로 되는 일이거나 대리자를 보내심으로 될 일도 아니오 또는 비밀한 가운데 잇을 일도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만인의 눈앞에서 이루어 질 일이다. (마 廿四 卅七) 그 때에 의인들은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어」하고 반가

이 환영할 것이나 (사 卅五 〇九) 의인들은 뜻하지 아니한 때에 도적과 가리 림함을 당하리니 (삼전 五 〇四) 그들은 멸함을 입을 것이다. 온 세계의 모든 족속이 다 애곡할 것이니 대개 저희의 소망이 헛거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압해 설 준비가 되지 못하였음이다. 그런즉 이 세상 잡사의 쾌락에 맛드리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잇는 인생들은 「각인의 눈이 반드시 보리라」는 말씀대로 오래지 아니하여 구름을 타고 림하실 예수에 대하여 김히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맛나기를 준비하였는가? 우리는 스스로 살피고 스스로 도라볼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바로 지금에 우리 온 심령을 예수께 바칠 것이다.

「저를 썩은자도 불리이오」 이 말씀도 별다른 해석을 가할 것임치 글자 그대로 「저를 썩은자」 곧 一천九백년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창으로 썩은자들을 가리침이니 저희가 예수께서 천만천사를 다리시고 재림하시는 것을 정녕히 목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악한자들의 특별한 부활이 잇을 것을 믿는다. (단 十二 一, 二, 卅十二 卅참고) 이 부활문제에 대하여는 二十장 해석가운데 자세한 설명이 잇겟기로 여기에는 이만큼 락하는 바이다.

여기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한 것은 「그리시아」 자모자(子母字)에서 나온 것이니 『알파』는 맨첫재자요 『오메가』는 맨나중자이다. 이는 낮고아 말하면 처음과 나중이란 것인 바 또 다시 말하자면 전부라는 뜻이다. 곧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썩나서는 온 우주가 다 허무한 것임을 증거하는 말이다. 「무소불능」이란 말은 두

기록에 기록된 독특한말의 하나로 그리스도께 대하여도 쓸수있는 말이니 그리스도께 서 자신과 아바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위하여 이말씀을 하시고 또「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즉이 하나님께서『모세』에게 자신을 가리쳐 말씀하시기를「나는 자연이 잇는자라」(출三〇十三, 十四) 하심과 같은 의미의 말이다. 대저 그리스도께서는「무궁한 생명의 권능을 조차」은혜와 영광의 나라의 처음도 되고 나중도 되시는이시다.

성신의감동하심을입음

「나」『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가리 참여하는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밖모』라하는 성에 잇어 주일을 당하여 내가 성신에 감동함을 입어 드르니 내 뒤에서 큰 소리가 라 발부는것 가라야 가리 대 너 보는것을 책에 써서『에베소』와『서머나』와『비가모』와『두아디라』와『사데』와『빌라델비아』와『라오디게아』닐굽교회에 부치라 하시기로」

九절말씀에는『요한』이 묵시받은 당시의 환경과 그의 잇든 처소에 대하여 가리치었다. 『요한』은 우리의 형제요 환난에 가리 참여한자니 어찌한 시대를 불론하고 부른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한 생애를 보내고저 하는자는 환난을 만나지 안을수 업는것이다. 일즉이『요한』과 그의 형제『야고보』로 말하면 예수께서 왕위에 나아가실때에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안게하시기를 구하였든자들이다. 그

러나 저들의 예기하였든바와는 전연이 틀려지고 예수께서 왕위에 나아가시는 대신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나아가는자들, 그의 나라의 후사가 되라고 하는자들은 고난과 업수히역임을 바드야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요한』도 또한 그 범위를 비서날수 업섯나니 기원九四년경에『로마』황제『도미티안』(Domitian)의 대핍박을 만나『밖모』라는 성에 유형(流刑)을 당하게 되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나니 당시는『요한』외의 열두사도는 모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여러가지 형벌로 순교를 당한새이었다. 『요한』이 이 두지를 밝기는 아마 기원九五년경 이엇을듯한데 당시에『요한』의 나이 거의 백세쯤 되었으리라 한다. 그리고 이성은 소아세아 서편 바다가운데 잇는 매우 조고마한 성이니 그곳이 六『마일』쯤되고 땅이 一『마일』쯤되고 주위가 十八『마일』쯤된다.

『요한』이 이러듯 쓸쓸하고 적막한 섬가운데 정바보냄을 입은것은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도리를 증거하기때문이니 그는 대제국의 황제의 압해서도 조공도 굴함의 업섯 충실히 그 직무를 다하였다. 진실로 핍박과 죽음이라도 하나님의 도의불을 켤수는 업섯 나니 대개「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가 되었다.『쥘•뵤안』(John Bunyan)과 같은 사람은『벧포드』의 감옥소에서도 그러듯 훌륭한『천로력정』을 저술해내지 안엇는가? 과연 세상의 어찌한 권세라도 진리를 압박할수는 업는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진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환락을 당할때에는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할것이니「환란은 인내를 나코 인내는 련달음 나코 련달음은 소망을 낫는줄 앎이다」(로五〇三, 四)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한가지로 참으면 또한 한가지로 님과 노릇 할 것이다」(골후 1:12) 『요한』이 「주일」을 당하여 성신의 감동함을 입었다 하였는바 여기 말한 「주일」은 어
 느남을 가리칭일가?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안식일이니 곧 토요일을
 가리칭이다. 오늘날 다수한 그리스도인들은 칠일중 첫날 곧 일요일을 주일이라 닐것지
 마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칠일중 첫날로 변경하시지도 안코 칠
 일중 첫날을 주일이라 닐카르신일도 없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안식일, 오늘날 향유말하
 는 토요일로 말하면 옛적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신성한일이오 귀찮할만한 날
 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닐헤되는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이라」(출 20:10) 하시고 또 이남을 가리쳐 「내 기록한날」(사 58:13) 이
 라 하였으며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막 2:28) 하였으
 니 「주일」은 분명히 안식일을 가리칭이오 일요일을 가리칭이 아니다. 『요한』은 분명
 안식일에 이 큰 무시를 보았는데 안식일, 창조와 구속의 귀찮일이 되는 안식일에 인
 류를 구원하시는 력사적 무시——그중에는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핍박을 받는 력
 사적사실도 잇는 그 무시를 본것은 진실로 의미잇는 일이라 닐카를것이다.

이 무시록의 사실은 사람의 머리로 꾸며내인 허무한것이 아니다. 『요한』이 자귀뒤
 에서 큰 소리가 라발부는것 가리 나는것을 드렸는바 그 소리가 「너보는것을 책에 써
 서 닐곱교회에 부치라」 명령하였다. 그 소리가 라발부는것 가랏다고 한것은 가장 높은
 권위를 의미하는것일지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때에도 라
 재 더욱 필요한 교훈이 되는것이다.

하늘에 계신인자

「몸을 도리켜 나다려 말한 소리를 알아보라고하야 도리킨즉 금촉대 닐곱이 보이
 는데 축대사이에 인자가튼이가 잇어 발에 스올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쇠를
 고 그 머리와 련의 회기가 흰 양털도 갖고 눈도 가드며 그의 눈은 불췌갓고 그
 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갓고 그의 소리는 만흔 물소리와 가튼지라 그
 오른손에 닐곱별을 잡앗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리한 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것 가튼지라 내가 볼때에 그 발압해 업더져 죽은것 가드매 저
 가 그 오른손으로 나를 안찰하야 가르사대 두려워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곳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섯노라 불지어다 이제 다시 살아 세세에 잇어 사망과 음
 부의 열쇠를 잡앗노니 그러고로 내 본것과 이제 잇는일과 장차 될일을 귀족하라
 내 본것은 내 오른손의 닐곱별의 오묘함과 닐곱 금촉대라 닐곱별은 닐곱 교회의
 사자요 닐곱축대는 닐곱교회니라」

『요한』이 몸을 도리켜 말씀하시는이가 누구신지 알고저한즉 홀연히 귀이한 광경이 나

라났다. 자기의 첫는곳이 적막한 성이 아닌것을 비로소 깨다랐다. 그리고 예수께서 계신것을 보았는데 그 모양은 『갓새마녀』 동산에 계실새와도 다르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로마』 병정에게 욕을 당하시든새와도 다르고 부활하신후에 나타나신 모양과도 달랐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양털도 같고 눈도 가트며 그의 눈은 불췌갓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갓고 그의 소리는 만흔 물소리와 갓고 그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것가운데 발에 쇠를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씨를 띄었다. 그 오른손에는 날굽벌을 잡았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리한김이 나왔는데 그가 금촉대 날굽이 잇는 사이로 다니셨다. 이 예수는 일즉부터 『오한』을 심히 사랑하시든 이어었다.

날굽촉대는 본장二十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날굽교회를 의미하는것이니 이 촉대는 성전안에 잇든 날굽가지 잇는 금촉대와는 모양이 가지아니한듯하다. 하나님께서 일즉이 교회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이러나 비출 발하라」 (사六〇—) 하시고 또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비치니 산우에 세운 성이 숨기지 못할것이오 사람이 동복을 켜서 말아래 두지아니하고 오직 등경우에 두어 온집안사람에게 비치나 이가리 너희 비출 사람압해 비치게하라 그사람들이 너희 착한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리라」 (마五〇—十四—十六) 하였으니 교회는 하늘의 비출 세상에 드러날 의무와 책임을 가졌다. 그러나 교회가 그 빛 자체는 아니니 비춘 곳 예수그리스도시다. 이 예수그리스도가 교회 곳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

건한 신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드러나게 될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금촉대」로 비유한 것은 금은 고귀하고 신성한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구속하신 교회를 이러듯 존귀히 비유하신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것이다.

인자가든이가 촉대사이로 다니신다 합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일마나 도라보시고 보호하시는것을 표시함이니 그는 교회안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고 각 신자가 어셔한 신앙상태에 처한것을 아시고 항상 위하야 대언하시는 리이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는 하나님의 집을 살피시는 참된 감시자(監視者)시오 하나님의 전을 보호하시는 참된 보호자시며 우리를 붓드시고 은혜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예수를 가리쳐 인자라 합은 그가 본래 하늘에 계셔서 존귀한 신성(神性)을 가지셨으며 이세상에 탄생하사 사람의 형체를 쓰시고 몸소 자신을 나타초심이니 날렷으대 「저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것으로 역이지 아니하시고 오이러 자기의 몸을 뷔어 종의



십 나 라 나 의 자 인

형상을 취하여 사람의 형태를 이루었으니 이미 사람의 모양이 있으며 자기를 나초시
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二〇六—八)하였다. 『요한』이
본 인자의 모양은 『다니엘』의 본바와 비슷하였나니 그 옷은 희기가 눈갓고 그 머리
털은 깨끗한 양의털 갓고 그 허리에겐 정금띠를 띠고 그 몸은 황옥갓고 그 얼굴은
번개모양갓고 그 눈은 햇불갓고 그 팔과 발은 빛난 구리와 갓고 그 말소리는 무리
의 소리와 가깝다. (단七〇九、十〇五、六) 그가 밭에 섰을리는 옷을 입으신것을 보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줄 알겠고 그 눈이 불꽃가튼것을 보매 그가 모든것을 통찰
(洞察)하시는 능이 계신줄 가히 알수있다. 또는 그의 발이 풀무에 련달한 빛난 주석
가튼죽 모든 죄악을 능히 밟아 업시하실수 잇는줄 알겠스며 그 오른손에 날굽별을잡
으셨으니 그가 교회의 사자들을 지배하시는줄 알겠스며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리한
김이 나오는것은 성신의 김인 하나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것을 표시함인줄 알
수있다.

그의 얼굴에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것 가리 영광의 비치 빛나매 『요한』은 그것을 보
고 죽은것가리 석에 업덕졌나니 대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능히 견딜수 업슴이었
다. 이에 예수께서 그 오른손으로 『요한』을 안찰하며 가르사대 「두려워말라」 하셨다. 「두
려워말라」는 말씀은 성경가운데 한 三백번이나 기재되었는데 만흔사람이 이 말씀으로
써 힘을 어뎠다.

예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항상 살아계시는이시니 그가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
시고 말씀이 되사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었다. 그러나 그는 一천九백여년전에 인성으
로 탄생하사 三十三년동안 인생의 고난을 모다 맛보시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성막에서
십자가에 달려죽으셨다가 三일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지 四十일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럼으로 그는 전에 죽었셨스나 다시 살아 세세에 잇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잠으셨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죽음을 맛보게 되었는
가? 이 문제는 사람의 천박한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할수도 업는 신비하고도 오묘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는 인류를 죄악가운데서 건지시라는 하나님의 크신경륜가운데서 나
은일이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을 밋고 오직 그에게만 신뢰(信賴)할
진대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것처럼 사망의 권
세를 이길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가리 자연히 계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그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
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으니 사망하래 매이고 음부에 가친자를 능히
노하줄 권세가 잇는것이다. 닐렸으대 「그가 혈육에 한가지 속하심은 사망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잠은자 곳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히二〇十四)하였고 또 닐렸으대 「내가 저
회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저회를 사망에서 구속하리로다」(호十三〇十四)
하고 「사망하 너의 이기는것이 어대 잇느냐 사망하 너의 쏘는것이 어대 잇느냐 우리
들로 하여금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전十五〇五十五、五十七) 하였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격(神格)과 지위

와 쓰는 그의 당하신 체험으로써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인류의 생사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높은 재판장이 되시었다.

『요한』은 두번째 그 본바를 책에 기록하라는 명령을 바뒀다. 그리하여 그는 묵시록 가운데 오묘한 진리와 구원의 계획에 관한 여러가지 사건을 기술하였는데 그가운데는 당시에 잇는 사실과 장차 잇을 사실도 기록되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에게 향하여 친히 니킴벨과 니킴금추대에 대한 길흔뜻을 설명하셨다. 무릇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자에게는 진리의 오묘한뜻이 비개인후에 태양비치 빛나는것처럼 매우 분명하게 빛날것이다.

니킴벨은 곳 니킴교회의 사자니 복음을 전파하는자들을 가리침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무수한벌을 주재하시는것처럼 또한 복음전도자들을 직접 지도하시나니 그리스도께서 지도하시는 전도자들을 가진 교회는 참말로 행복되다. 만일 교회의 모든 신도가 그 추대사이로 다니시는 그리스도께 충실히 순종하고 또한 깨끗한 생애를 보낸다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광명한 비출 바들것이오 특별한 보호를 입을것이다. 무시록가운데는 하나님과 그 백성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잇는 큰 진리를 계층적으로 나타내었는바 과연 그리스도께서 각시대의교회 곳 추대사이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에 계신 쓸때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 낫날까지 너희와 항상 가리 잇으리라」 (마廿八〇二十) 하신것이다.